

독서론 기초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①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1.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자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 ②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인가?
-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받은 책인가?
- ④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 ⑤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2.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 ③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읽는다.
- ④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 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3. 윗글을 쓴 학생에게 ㉠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①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는 게 좋겠어.
- ②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 ③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
- ④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
- 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②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③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2.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⑤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 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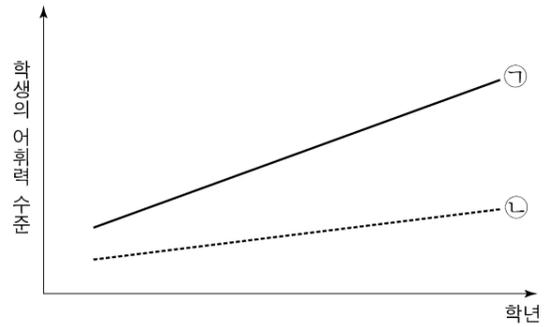
그러나 ㉢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3.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 ②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다.
- ③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의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는 눈동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글을 읽으며 우선 글 전체에서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 나갔다. '장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 앞에 읽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나니 문맥을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도서관의 등장과 역할 변화가 글의 주제라는 것을 파악하고서 ㉣ 그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어 나갔다. '파피루스를 대신하여 양피지가 사용되었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 ㉤ '대신하여'와 달리 '파피루스'와 '양피지'처럼 생소한 단어는 하나씩 확인하며 읽었다.

- ①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서는 고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 ② ㉡: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③ ㉢: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도약이 나타났을 것이다.
- ④ ㉣: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짧고 고정 횟수가 적었을 것이다.
- ⑤ ㉤: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가] 나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

- ①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을 때
- ②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읽을 때
- ③ 다양한 글을 읽어서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 ④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졌을 때
- ⑤ 읽기 목적에 따라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때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필자가 보여 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한편 독자는 ㉠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 생산·공유함으로써,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다른 독자와의 소통은 독자가 인식의 폭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 ③ 독자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책의 필자를 매개로 접할 수 있다.
- ④ 독자의 배경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 ⑤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

2. 다음은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베토벤에 대한 책을 빌렸다. 책에서는 기악만으로 구성됐던 교향곡에 성악을 결합해 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했다.

「합창」을 해설한 부분에 이어,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뒷부분도 읽었는데, ㉢ 이 내용들을 종합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에 교향곡 구성의 새로움을 보여 준 명작이 탄생했음을 알게 됐다. 이후 ㉣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 ㉤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① ㉠과 ㉡에는 모두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난다.
- ② ㉢와 ㉣에는 모두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3. 윗글을 읽고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② 독서 모임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③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동아리를 통해 심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④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해석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자기 계발 등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독서 동기는 ‘독서를 이끌어 내고, 지속하는 힘’으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는 독서의 시작과 지속이라는 두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독서 동기는 슈츠가 제시한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라는 두 유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A] 독서의 ‘때문에 동기’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를 의미한다. 이는 독서 행위를 유발한 계기가 되므로 독서 이전 시점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해당한다. 독서의 ‘위하여 동기’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독서 행위의 결과로 달성되므로 독서 이후 시점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게 되었다고 할 때, 선물로 책을 받은 것은 이 독서 행위의 ‘때문에 동기’이다. 그리고 책을 읽고 친구와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면 이는 ‘위하여 동기’가 된다. 또한 독서 행위를 통해 성취감이나 감동을 느끼는 것, 선물로 받은 책을 읽어서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등도 이 독서 행위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역시 ‘위하여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 개념은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은 새로운 독서 행위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때문에 동기’가 된다. 동시에, 새로운 독서 행위를 통해 다시 경험하고 싶어지는 ‘위하여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려면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우선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과,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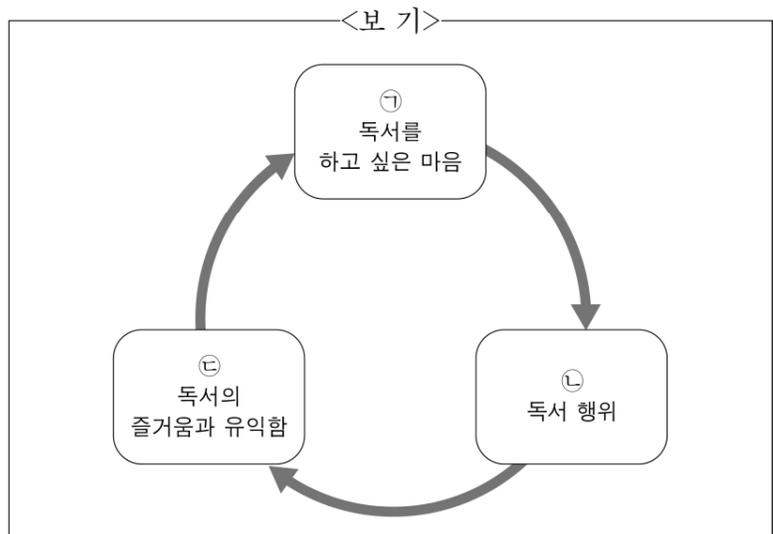
- ① 타인의 권유나 추천이 독서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 ② 슈츠는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 ③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독서 동기의 정의는 독서를 시작하게 하는 힘과 계속하게 하는 힘을 포함한다.
- ⑤ 독서의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는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다음은 학생의 메모이다. [A]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 학교에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과제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읽을 책으로 철학 분야의 책을 선택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 철학에 대해 많이 알게 되겠지, 그리고 ㉢ 어려운 책을 읽어 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거야.

- ① ㉠은 독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위하여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② ㉡는 독서를 하도록 만든 사건에 해당하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③ ㉠과 ㉡는 이미 발생하여 독서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④ ㉠과 ㉢은 독서 이전 시점에 경험한 일에 해당하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⑤ ㉡와 ㉢은 독서의 결과로 얻게 될 기대에 해당하므로 ‘위하여 동기’라고 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시작해 ㉡를 경험하면 ㉠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② ㉢으로 ㉡를 얻는 것이 성공적 독서 경험의 핵심이다.
- ③ ㉡의 경험을 통하여 ㉠이 생기면 ㉢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④ ㉡는 ㉢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⑤ ㉠, ㉢, ㉡의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된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읽기는 듣기·말하기와 달리 영·유아가 글자를 깨치고 나서야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는 그 전에도 읽기 발달이 진행된다고 본다.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

여기서 읽기 준비 단계는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글자의 형태에 익숙해지며,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도 어렵듯이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자가 뜻이 있고 음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의 읽기 발달은 타인의 읽기 행위를 관찰하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진행된다. 영·유아는 타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 책장을 넘기는 방식 등을 알게 된다. 읽어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가 책을 넘기며 중얼거리고 책 읽는 흉내를 내는 것,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 거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A]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활 속에서, 책을 자주 읽어 주며 생각을 묻는 등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다.
 - ② 영·유아의 의사소통 각 영역은 상호 간의 작용 없이 발달한다.
 - ③ 영·유아는 글자와 소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게 된다.
 - ④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의 단계를 나눈다.
 - ⑤ 글자를 습득하고 소리 내어 읽는 단계는 학습을 목적으로 읽는 단계에 선행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이 책을 읽어 줄 때 들었던 구절을 사용하여 말하는 행동이 관찰된다.
- ② 책에서 글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글자를 보는 행위가 관찰된다.
- ③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 내어 글자를 읽는 행동이 관찰된다.
- ④ 책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내는 행위가 관찰된다.
- ⑤ 책을 볼 때 부모가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읽어 준 행동을 기억하여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된다.

3.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 그 전에는 읽기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듣기·말하기와 달리 읽기 발달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가르친 후 읽기, 쓰기의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A]와 달리 <보기>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를 강조하는군.
- ② [A]와 달리 <보기>는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군.
- ③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는군.
- ④ [A]와 <보기>는 모두 읽기 이후에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군.
- ⑤ [A]와 <보기>는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전략을 선택할 때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②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③ 독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독자는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 ④ 독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⑤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독자 스스로 독서 진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 ②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점검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
- ③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 ④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의 발생을 막는다.
- ⑤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에는 초인지의 역할이 필요 없다.

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린 생각이다. ㉠~㉤과 관련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 봐야겠어. …… ㉠

↓

○ 더 읽어 보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 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아 읽든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든가,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 …… ㉡

○ 검색을 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 ㉢

○ 검색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 봐야겠다. 그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 …… ㉣

○ 그럼 일단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읽어 보자.

↓

○ 앞부분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네.

○ 이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어. …… ㉤

↓

○ 이제 이 용어의 뜻이 이해되네. 그럼 계속 읽어 볼까?

- ① ㉠: ㉠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② ㉡: ㉡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떠올렸다.
- ③ ㉢: ㉢을 고려하여 전략의 사용 조건을 확인했다.
- ④ ㉣: ㉣을 판단하여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했다.
- ⑤ ㉤: ㉤을 판단하여 최적이라고 생각한 전략을 선택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글에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며 읽는 능력은 많은 정보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궁금증 해소나 글쓰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글 읽기를 할 때에 한 편의 글에 원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글을 읽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독자는 우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찾아야 한다. 읽을 글을 선정할 때에는 믿을 만한 글인지와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글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뢰성 평가는 글의 저자, 생산 기관, 출판 시기 등 출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그 글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 관련성 평가는 글의 내용에 읽기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읽기 목적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며 평가해 가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글들을 선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어야 한다. 이때 글의 정보는 독자가 이해한 의미로 재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한다. 이들 세 전략은 꼭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선택하기란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이다. 연결하기란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정교화하며 연결하여, 읽은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거나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글의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조직하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의 순서에 따른 글과 정보 나열의 글을 읽고, 읽은 글의 구조와는 다른 비교·대조의 구조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글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 ② 여러 글 읽기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③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읽기에서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 ④ 여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목적과 관련된다.
- ⑤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에서 얻지 못할 때는 다른 글을 찾기 보다 그 글을 반복해서 읽는다.

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 내용이 수행 과제와 관련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 ② 읽을 글을 선정하기 위해 출판사의 공신력을 따지는 것은 ㉠을 고려한 것이다.
- ③ ㉡에서는 글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정보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다.
- ⑤ 글 내용에 목적에 맞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에, 저자의 경력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에 관련된다.

3. 다음은 여러 글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독서록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동물이 그린 그림의 판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동물의 행동 사례를 열거하여 소개한 <동물은 예술가>라는 글에서 ㉠ '동물의 그림도 예술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동물에게 유산 상속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경우를 비교·대조한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읽으며 ㉡ '동물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 이 정보를 <동물은 예술가>에서 추출한 정보와 연결하여 '동물의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겠다'는 새로운 의미를 떠올렸다. 동물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저작권의 개념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저작권의 역사>라는 글을 읽고 저작권의 의미를 이해하여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 세 글의 정보를 종합하여 '동물 저작권의 성립 요건'에 관해 인과 관계 구조로 정리하였다. 그러면서 동물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여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에서 ㉤ '동물 소유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 ① ㉠: <동물은 예술가>를 읽으며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했겠군.
- ② ㉡: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으며 연결하기 전략에 앞서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했겠군.
- ③ ㉢: <동물은 예술가>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으며 선택한 정보들로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했겠군.
- ④ ㉣: 새로운 구조로 정리하여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했겠군.
- ⑤ ㉤: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으며 선택하기 전략을 다시 활용했겠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이외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접하곤 한다.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문자가 제공하는 정보, 즉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 이 두 정보들은 서로 참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시각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각 자료는 여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 ②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부각할 수 있다.
- ③ 독자가 시각 자료에 끌리다 보면 글을 읽는 목적을 잃을 수 있다.
- ④ 시각 자료의 용도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 ⑤ 독자는 낯선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의미는 글 내용과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상호 참조되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면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었을 수 있다.
- ④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시각 자료의 관련성을 따지고 시각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⑤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3.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다.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보니, 그림 1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 그림 2에서 그것들을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을 담고 있었다.

- ①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다.
- ②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화해 보여 주면서 글 내용도 보완해 주는 설명적 시각 자료이다.
- ③ 그림 2는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여 주는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 ④ 그림 3은 글 내용에 있는 설명 대상을 표현하여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그림 2와 3은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용이하다.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에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기로 하는 것 등이다. 이는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 ②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 ④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 ⑤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2.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며 읽는다.
- ②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 ③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을 삭제한다.
- ④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 ⑤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목적)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
 (표시 기호) , 1) · 2) , √ , ~~~~

(독서 자료)
 고래는 육지 포유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 생활에 적응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1)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 주며, 2)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의 종류마다 다른데, √ 대체로 몸길이는 1.3m에서 30m에 이른다. √ 피부에는 털이 없거나 아주 짧게 나 있다.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이고, 헤엄칠 때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고래는 폐로 호흡하므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분수공으로 내뿜고 다시 숨을 들이마신 뒤 잠수한다. 작은 고래들은 몇 분밖에 숨을 참지 못하지만, 큰 고래들은 1시간 정도 물속에 머물 수 있다.

- ①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②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1)',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③ 2문단에서 ''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④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2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에 '√'를 누락하였군.
- ⑤ '~~~~'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독자는 그 동형이의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독자는 동형이의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예를 들어 ‘그가 사과를 꺾었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강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된다. 그에 비해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과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독자는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 ②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 ③ 동형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다.
- ④ 동형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
- ⑤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에 따라 의미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진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맥에 따라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든다.
- ② 문장 내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 ③ 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정한다.
- ④ 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 ⑤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

3. <보기>는 선생님과 학생이 수업 중 읽은 글과 이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수가 길을 걷다가 배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배를 참 좋아하셨다는 것을 떠올렸다. 몇 개 사서 집에 돌아온 그는 봉투에서 하나를 꺼내 식탁에 앉아서 먹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다리를 베고 자던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 이 글에서 ‘배’와 ‘다리’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말해 볼까요?

학 생 : ㉡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배’가 선박과 과일 중 무슨 의미인지 헷갈렸어요. ㉢ 걷고 있는 곳이 바닷가면 선박일 것 같고, 시장 근처면 과일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워서 계속 헷갈렸어요. 그런데 ㉣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내용을 보고 그 ‘배’가 과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 ‘다리’는 바로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의 신체 부위로 이해해야 ‘다리를 베고 자던’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우니까요.

- ① ㉡ : ‘배’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겠군.
- ② ㉢ :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여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고려했던 것이겠군.
- ③ ㉣ : ‘배’의 두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④ ㉣ :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앞의 문장들과 연관 지어 ‘배’의 의미를 확정했던 것이겠군.
- ⑤ ㉣ : 네 번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을 고려하여 ‘다리’의 의미를 신체 부위로 확정했던 것이겠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곧바로 만들어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의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독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정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다.

[A]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 학습한 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한다. 또한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왜곡되게 편집된 정보가 있는지, ㉡ 출처는 명확한지 등을 점검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독자는 ㉢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글이나 서적을 통해 내용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1.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 ②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 ③ 독자는 자신이 읽고자 하는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④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의 검토를 위해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독자가 대상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생성한다.
- ② 독자가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 ③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있는 정보는 일괄적으로 제거된다.
- ④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의 변화 가능성은 차단된다.
- ⑤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보기>는 학생의 독서 일지이다. ㉠~㉢와 관련하여 학생의 읽기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체독(體讀)’이라는 독서 방법이 궁금해서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 생성된 자료에 ‘체독은 글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읽기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라는 말이 어려워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해서 알아보았다. 생성된 자료에서 ‘동양인의 높은 정신 수준에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 체독에 관한 동양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생성하여 읽어 보았다. 자료를 읽다 보니 동양의 사례만 찾아 보고 있는 것 같아, 방향을 달리하여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체독 사례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 체독에 대해 알게 된 후 인공지능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주말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보아야겠다.

- 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②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③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④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를 읽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⑤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책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 것은, ㉠를 점검하는 것에 해당하겠군.